

남영전구 '수은 형광등' 10년간 일반폐기물 처리

년 40~180t 폐유리 수거업체 통해 여수 매립장에 매립 당국 "마땅한 처벌법규 없어 제재 못해" 관리감독 '뒷심'

근로자들의 집단 수은중독 사태 일으킨 광주 하남산단 전구업체 (주)남영전구가 공장이 가동 중이던 최근 10년간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리 수백t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형광등은 치과용 아말감과 함께 대표적인 수은 폐기물이지만 수은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영전구처럼 마구잡이로 폐형광등을 일반 폐기물로 취급해 처리하더라도 처벌법규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하남공장에서 연간 최대 180t에 이르는 폐유리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됐고 이 가운데 수은이 주입된 폐형광등이 상당량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남영전구 하남공장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생산시설 폐쇄전까지 매년 40~180t가량의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

리가 발생했는데 제조 과정에서 수은이 들어간 폐형광등도 무더기로 일반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됐다는 것이다.

남영전구에서 발생한 폐형광등을 비롯한 폐유리는 일반 봉투에 담겨 광주의 한 수거업체에 의해 여수의 한 매립장으로 옮겨진 뒤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이 주입된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리의 t당 매립단가는 4만~5만원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영전구 측은 수거업체는 물론 매립장 운영업체 측에도 수은이 주입된 형광등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사실상 수은 관리와 근로자 안전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업체 측은 "폐형광등이 무더기로 있었지만, 수은이 들어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제작 과정에서 수은을 사용해 만들어진 형광등 한 개에는 수은이 10~20mg 정도 포함돼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깨지거나 일반 폐기물로 보고 매

립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 장애 등 질환을 유발하고, 고농도의 수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당국은 폐형광등을 비롯한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폐형광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시켜 수은을 회수하고 유리를 재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업체 자율에 맡겨둔 관리 감독은 이뤄지

지 않고 있다. 또한, 남영전구처럼 폐유리에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무더기로 끼워 일반 폐기물로 매립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영전구 측이 최근 10년간 수은이 들어간 폐형광등을 포함한 수백t의 폐유리를 일반폐기물로 매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처벌법규가 완벽하지 않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제 수은협약 가입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영산강유역환경청, 남영전구 대표 검찰 고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수은을 불법 매립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 하남산단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형광등 생산설비 철거공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 3kg의 수은을 지하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중독 유발 책임을 물어 김씨를 산업안전보건법(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동원됐던 근로자 6명은 수은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를 신청했다. 또 3명의 근로자가 조만간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월 11일엔 초콜릿 말고 가래떡 드세요 광주 남구 '222m 가래떡' 만든다

"11월 11일은 초콜릿 말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드세요."

광주시 남구는 양림동 주민들이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우리 쌀로 만든 '222m 가래떡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빼빼로 데이로 알려진 기념일이 '가래떡의 날'로 자리 잡고, 우리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만들어 길게 늘어뜨리는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지난해 11월 11일에 도 학생, 주민 240여명이 참여해 길이 111m에 달하는 대형 가래떡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사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긴 가래떡을 만들고 길게 늘어뜨리는 행사를 열

기 위해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도전은 오전 11시11분 양림동 소담떡방 앞 거리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양림동 소담떡방 앞 사거리에서부터 기독교병원 정문 등 222m 구간에서 가래떡 만들기 행사를 연다. 행사에 사용된 떡은 현장에서 잘라 이웃과 나눠 먹고 즐리는 어르신과 경로당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도전은 빼빼로 데이를 대신해 우리 먹거리인 가래떡을 나눠먹으며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 대신, 가래떡 데이로 자리 잡고 우리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미세먼지에 갇힌 광주도심. 광주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오전 광주 서구지역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이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희뿌옇다. 이날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16 $\mu\text{g}/\text{m}^3$ (매우나쁨), 평균농도는 74 $\mu\text{g}/\text{m}^3$ (나쁨)로 관측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배 사실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소송 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받고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들의 수배 여부를 인의로 조회하고 이를 누설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고 밝혔

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달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환전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조직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과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화재 1명 사망 7명 중경상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우조선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내부에서 작업중인 50대 근로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 숨졌

고 7명의 근로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대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탱크 안에서는 130여명의 근로자들이 작업중이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가 나섰다. /연합뉴스

승용차 고의로 부딪친 뒤 17차례 뺑소니 허위신고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제 발로 다가 부딪친 뒤 뺑소니를 당했다며 2시간에 걸쳐 무려 17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들

미.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 9월 17일 밤 10시50분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김모(여·53)씨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17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는 낮지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이른날 "뺑소니 사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나"며 사고 접수 취소를 요청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범행이 들통.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